

꺀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5-09호 2005년 9월 18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꺀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7조 꺀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샘이다.

꺀 프란치스칸 묵상 방법 꺀

기경호(프란치스코) ofm 신부

이 묵상 방법은 작은형제회의 알칸따라의 성베드로가 창안한 묵상법이다. 이 묵상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묵상의 주제는 항상 하느님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 묵상에서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관계에만 국한된다면 묵상이 아니라 양심 성찰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 묵상은 보통 15-30분에 걸쳐 하게되며,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 준비, 제2단계 독서 제3단계 고찰, 제4단계 감사, 제5단계 봉헌 및 결심, 제6단계 청원. 이는 준비 단계, 묵상 부분, 감사 및 결심, 청원 부분으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제 1 단계 - 묵상기도 바로 전의 준비

1. 간접적인 준비(먼 준비)는 평소의 내적인 상태로서 평소에 하느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오관을 조절하고 절제함으로써 고요와 침묵의 마음 상태를 지니도록 한다.
2. 직접적인 준비(가까운 준비)는 묵상의 주제를 정하고 독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3. 기도 바로 전의 준비: 다음 사항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다.
 -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한다. 여기서 짧은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분심을 버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성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 마음의 정리. 감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도록 한다.

제 2 단계 - 영적 독서

적어도 전날 밤에 준비한 읽을 거리(묵상 재료)를 천천히 읽는다. 초기의 묵상에서는 영적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즉 독서 - 고찰 - 감사 - 봉헌 및 결심 - 독서 - 고찰 - 감사 ...

여기서는 어떤 독서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제 3 단계 - 고찰

여기서 고찰이란 협의로는 반성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 단계는 본질적인 묵상 단계로서 시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찰을 하는 목적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실천을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다. 상상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난의 현장에 뛰어들고, 기억력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억을 되살리도록 한다 (상상력과 기억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지력을 통하여 위의 두 가지를 일치시키도록 한다(분별 능력).

고찰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 부활, 교회 안에서의 신비, 인간의 가치와 지상적 산물, 죄에 대한 것, 나아가 프란치스칸으로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다.

* 묵상시 주의점 *

- 이론적인 주제를 피해야 한다 (주제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
- 자기 자신의 말로 하도록 한다. 즉 자신에 알맞는 방법을 찾도록 한다.

제 4 단계 - 감사와 찬미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단계로서 마지막 단계의 구체적인 청원과 연관된다.

제 5 단계 - 봉헌 및 결심

묵상기도를 통하여 주신 선물과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고, 구체적인 결심을 한다. 이는 다음 단계의 청원과 연관되어 있다.

제 6 단계 - 청원

이는 봉헌 및 결심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청원과 보편적인 기도를 바친다.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축일은 ...

1224년 9월 17일

성 프란치스코가 천상 세계로 옮겨가기 2년전 라베르나에서 미카엘 축일을 준비하는 40일 기도를 하던 중 성 십자가가 현양 축일에 세라핌 환시를 보게 되었다. 이때 세라핌의 6 날개 가운데 십자가를 보았으며 환시가 사라진 뒤 성인께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마음과 더불어 주님의 다섯 군데의 수난 상처가 각인되어 고통을 느꼈다.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수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닮도록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의미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즉 가난의 구체적 표지이며 성인의 일생을 극적으로 요약하는 사건인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음으로(1224년 9월 17일) 완전한 해방 체험을 하게된다. 성인이 돌아가신 후 면밀한 조사를 거쳐 교회 법적으로 진실임이 선언되었고 1304년 베네딕도 11세가 축일로 제정하였으며 14세기말부터 프란치스코들은 특별한 전례로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거룩한 오상을 통하여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녔네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무렵의 어느 날 아침 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같이 빛나는 여섯 날개를 가진 세라핌이 하늘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는 빠른 날개 짓으로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에게 가까이 와 공중에 떠 있었다. 이때 프란치스코는 그 천사가 날개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있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본 프란치스코는 매우 놀랐다. 그의 마음은 곧 환희와 비탄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운 출현이 그렇게 다정하고 경이로운 모습일 수가 없어서 말할 수 없이 강한 환희를 느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을 바라보고는 그만 영혼이 저미는 듯이 한없는 비탄과 연민을 느꼈다.

내밀하고도 다정한 대화 후 발현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은 내적으로 세라핌과도 같이 활활 불타올랐고, 그의 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인 되었다. 즉시 그의 손과 발에 못 자국이 드러났다. 손등과 발등에는 못 머리가,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못 끝을 볼 수 있었다. 오른쪽 옆구리는 창에 찔린 것 같았고 그



주위의 삶은 별장게 충혈 되었고 그 상처로부터는 거룩한 피가 흘러 내렸다.

프란치스코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상흔에 대한 이 새롭고 탄복할 기적은 전 세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그는 새사람으로 산을 내려왔다.

이제 그의 몸에는 예술가의 손으로 돌이나 나무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손으로 새겨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 성보나벤투라가 쓴 <성프란치스코의 소전>에서

당신 사랑의 불로 저희 마음을 태우시려고,
지극히 복된 저희 사부 프란치스코의 몸에
신비로이 당신 아드님의 수난 상흔을 박아주신
하느님, 그의 전구를 들으시여,
저희도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본받고,
그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은 진실만을 요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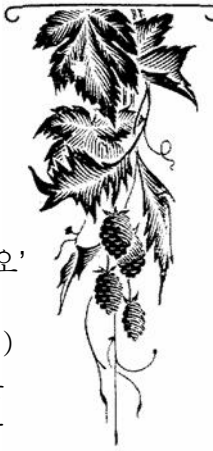
- 막상배 마테오 -

“여러분은 말할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하시오. 이보다 넘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마태 5,37)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누가 무엇을 물으면 ‘예’와 ‘아니오’로 모두 답할 수 있을까? 물론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말도 점점 많아집니다. 도대체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 뒤에 나옵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크신 임금님의 도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 뒤에 덧붙인 지시입니다.

우선 하느님의 나라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자기 발설을 강조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습관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로 사도만 해도 1데살 2,5,10; 갈라 1,20; 필립 1,8; 고린 1,18, 23; 2,10; 11, 31; 로마 1, 9-10; 9, 등에서 말씀을 믿어달라고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내세웠겠습니까만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 진실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이상은 군더더기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의 서약은 ‘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회칙생활에 대한 ‘서약’은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는(회개) 것이며 일생을 통해 이 생활이 계속되므로 이 서약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서약은 결코 지나다가 던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만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했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가을 **

-법정스님-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고 한다.
나뭇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얇은 우수에
물들어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대중가요에도,
속이 뻘뻘 들어다보이는 그런 가사 하나에도 곧잘
귀를 모은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깊은 밤 등하에서 주소록을 펼쳐 들
친구들의 눈매를, 그 음성을 기억해낸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한낮에는 아무리 의젓하고 뽐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기운 다음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 하나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여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스레 알아차린다.

이 시대 이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줄로 맺어져
서로가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잡힐 듯 하면서도 막막한 물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생자필멸, 회자정리, 그런 것인 줄은 뻘뻘 알면서도
노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내 차레는 언제 어디서일까 하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싶다.

이 다음 세상 어느 길목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오 아무게 아닌가 하고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8월 25-28일 캐나다 토론토의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가 주최하는 제7차 북남미 연수회에 한테레사 자매를 비롯해 8명이 다녀왔습니다. 8차 연수회는 3년 후인 2008년 LA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 9월 20일에서 10월 14일까지 김 베르나르디노 신부님께서 소련을 비롯해 유럽을 다녀 오시겠습니다.
- + 카트리나 폭풍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 오늘 있겠으니 성의껏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0월 4일은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입니다. 9월 26일부터 칠락 목주로 9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 9월 25일에 구역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하도록 합시다.
- + 10월 양성보조자 교육은 1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강요한 형제택에서 있겠습니다. 9월 양성보조자 교육은 3일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있었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
- + 새로 오신 지원자들과 보나벤투라 형제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9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미사
3:40 PM - 친교, 회비/후원회비 납부
4:00 PM - 월례회

✧ 미사 성가: 지침서 ✧

입당: 5번 작은꽃
봉헌: 35번 새로운 계명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49번 하나 되게 하소서

신자들의 기도:

강옥희, 지수성, 강수연, 박용순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9월4일

곽재옥 로사 조순우 로사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497-0069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병두 신부 O.F.M. berdiofm@hanmail.net